

미술시장 불황에도...속속 문 여는 갤러리

지난달 개관 화순 '갤러리 도'

김선미 작가 남편 고향집 자리에
“마을주민들에 문턱 없는 사랑방 되길”
‘봄날 같은 내인생’...24일까지 개관전

15일 오픈 매월동 '화이트 큐브'

미술 평론가 정명숙씨가 설립
개관 기념 '파꽃 화가' 최향 초대전



화순읍 내평리에 문 여는 '갤러리 도'의 내부 모습.

미술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갤러리들이 속속 생기며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광주 도심이 아닌 외곽지역에 자리잡으며 미술을 접하기 힘든 지역민들에게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7일 방문한 화순 '갤러리 도(DOW)'(화순읍 내평길 39-11)는 한적한 시골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

지난달 27일 문을 연 김선미(37) 관장은 “작업실 공간을 알아보면 중 남편이 태어난 집이 있던 공터에 갤러리 겸 작업실을 열었다”고 말했다. 김 관장은 올해 광주시 미술대전에서 최우수상 수상하기도 하는 등 작가 생활을 하고 있다.

갤러리는 현대적인 외양과 더불어 높이 3.2m·가로 3m 대형 통유리가 설치돼 시선을 뚫는다. 갤러리 내부는 창문이 없는 반듯한 흰색벽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변 만류를 뿌리치고 유리창을 통해 세상과 소통해보자고 생각한 결과다.

“지난 겨울 갤러리 공사를 할 때 외삼촌(장영준 한국예총 책임큐레이터)을 비롯해 대학 교수님들이 ‘갤러리에 무슨 창문이 이렇게 많냐’고 하시더라고요. 조언은 고마웠지만 갤러리 안에서 바깥 풍경을 감상하고, 바깥에서는 갤러리 내부를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어요.”

이름 ‘도’는 영어 ‘DOW’(생산성 있는 발전), 한글 ‘돌’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 7음계의 시작인 만큼 ‘새로움’을 상징한다.

약 5m 높이를 자랑하는 갤러리의 또다른 특징은 복층형 구조다. 1층은 전시장(66㎡)과 응접실·다용도실(33㎡)로 구성되고 2층은 작업실 겸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원래 김 관장은 조선대 미술대학과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교사를 하려고 했다. 작업에 대한 꿈을 버릴 수 없었던 그는 지난 2015년 비영리봉사단체 ‘마루컬처’ 미술감독을 맡던 중 광주·전남 외국인 초상화 전시를 연다. 본격적인 작가 생활을 결심한 계기로, 현재는 전남대에서 서양화 전공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어느날 한 작가가 SNS에 써놓은 ‘작가라면 100호 작품 100점과 높이 5m 이상 작업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글을 보고 천장이 높은 작업실을 가지고 싶었어요. 막상 작업실을 만들려고 하니 갤러리가 욕심이 나더군요. 미술 애호가들이 모여 즐거움을 나누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면 좋겠습니다.”

김 관장이 갤러리를 연다고 하자 대학 시절 교수와 선배 작가들이 개관전에 참여했다. 김종일 전남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김대길·서기문 교수, 오경규·이석원·최재영·김영희 작가 등 11명이 ‘봄날 같은 내 인생’을 주제로 조각, 회화,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개관전은 24일까지 이어진다.

갤러리 도는 내평마을의 새로운 자랑거리가 됐다. 마을주민들은 누가 찾아오면 갤러리에 데리고 와 구경을 시키곤 한다.

김 관장은 앞으로 주민들에게 현대미술을 소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언젠대 찾아오더라도 늘 문이 열려 있는 문턱 없는 갤러리를 꿈꾸고 있다. 문의 061-375-1556.

광주 매월동 전평계 인근에도 갤러리가 들어선다. 지역에서 미술평론가로 활동하는 정명숙(여·57)씨가 오는 15일 화이트큐브 갤러리를 개관할 예정이다.

상기건물 3층(115㎡)에 자리잡은 갤러리는 이룸답게 하얀색으로 꾸민 내부가 특징이다.

미학 미술사학을 공부한 정 관장은 이론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갤러리를 운영하는 것이 평생 소망이었다.

갤러리의 사전적 의미는 ‘미술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장소’이지만 정 관장은 르네상스 시대 술포난 장소로서의 갤러리를 생각하고 있다.

7월15일까지 열리는 개관전 초대 작가는 파꽃을 주제로 작업하고 있는 최향씨다. 최 작가는 나이프로 유화 물감을 캔버스에 바른 뒤 조금씩 때내면서 뾰족한 파꽃 모양을 표현하는 독창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

정 관장은 황금색, 빨강, 노랑 등 다채로운 색채뿐 아니라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아름다움을 발하는 파꽃처럼 열정적으로 작업을 하는 최 작가가 주는 메시지에 주목했다.

정 관장은 ‘회화·조각·설치미술·사진·레이디메이드(기성품)·재활용품 등 다양한 장르를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장소로서 갤러리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화이트큐브 갤러리에서 관람자들이 행복하게 놀이하는 인간(Homo Ludens)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2-385-033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내 마음의 꽃’...김해란 작가 개인전

14일까지
무등갤러리



▶‘환희’

꽃을 통해 잃어버린 감성을 전달하는 김해란 작가가 14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내 마음의 꽃’을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수채와 아크릴로 꽃을 그린 작품 40여점을 선보인다.

어렸을 적 꽃을 보고 자란 김 작가는 독일 FDF 플로리스트 마이스터를 획득하고 현재 금바다꽃예술중앙회장을 맡고 있는 등 꽃꽂이 전문가다. 꽃 배치를 구성하기 위해 스케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회화를 접하고 배웠다.

작품 소재는 대부분 꽃이다. 초창기에는 인물과 풍경도 그리곤 했지만 최근에는 꽃으로 캔버스를 채우고 있다. 전시장에서는 다채로운 꽃들을 만날

수 있다. 유채꽃, 산수유, 생강나무, 민들레, 제비꽃 등을 단순화시켜 화폭에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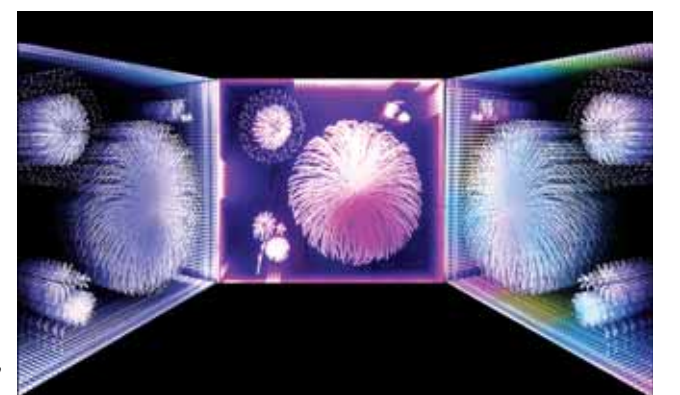
‘생명의 숲’, ‘환희’ 등 일반 회화를 비롯해 병따개를 활용한 ‘꽃의 여행’, 부지포에 그린 ‘Flower Drawing’ 등 다양한 재료가 눈에 띈다.

또 ‘꽃과 여인’, ‘여름’ 등 풍경, 인물 작품도 함께 전시한다.

김씨는 ‘여성 7인 회화전’, ‘100인의 릴레이 아트전’, 그룹 ‘美行’전, 그룹 ‘그림사랑’ 수채화동호회전 등에 참여했다. 현재 전남대 평생교육원에서 힐링평화테라피 전담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문의 062-236-252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레지던스 기획전



▶안유자 작 '파체'

안유자 등 3개팀, 미디어 338서 7월 17일까지

LED부터 프로젝션 맵핑, 비디오 영상이 다양해진 미디어아트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광주문화재단이 오는 7월17일까지 미디어아트 특화 전시장인 미디어 338에서 미디어아트레지던스 기획전시 ‘The Bridge’를 연다.

이번 전시는 ‘The Bridge’를 주제로 미디어아트레지던스 6기 입주작가 안유자·문창환(이상 개인전), 강수정·이성웅·임용현·폴 바주카(이상 단체전) 작가가 릴레이로 나선다. ‘The Bridge’는 작가와 관객 또는 미디어아트와 시민을 잇는다는 의미다.

14일까지 열리는 첫번째 전시는 안유자 작가의 ‘빛의 세계’다. LED 빛을 활용해 평면 이미지에 입체감을 부여한 작품을 출품한다. 이어 단체전 ‘Cell’(작품 18일~7월1일 진행)다. 작가 4명이 나서 영상, 사운드 등을 활용해 초현실적인 세계를 표현한다.

마지막 전시는 오는 7월 5일부터 16일까지 문창환 작가의 개인전 ‘여행’이다. ‘이곳이 아닌 저곳을 꿈꾸며 산다’를 주제로 작가가 상상하는 미지의 세상으로 영상과 설치 작품으로 선보이며 관객들을 초대한다. 문의 062-670-749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선미 관장이 갤러리 도를 소개하고 있다.



최향 작 '파꽃일기'

이농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7년 6월호

5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문화로 먹고 사는 광주'를 꿈꾼다

—문화일자리, 열정 넘치는데 받아줄 곳 없네
—문화기획자 성장시길 '사다리'를 놓자
—광주 핫한 문화현장, 중심에 우리가 있다

소문난 예술교육현장을 찾아서 ⑧
특별한 명작 감상과 체계적 예술교육
오랑주리 미술관

에필로그
성공적 광주의 예술교육 완성할 디딤돌 놓자

노중훈의 꿈의 여행 ⑧
눈앞에 펼쳐진 놀라움의 연속
아람에미리트 아부다비

트렌드 따라잡기 ⑤
‘첫바퀴에서 내리면 보이는’ 나
내 방식대로 ‘심플라이프’

예향이 만난 이 사람
개그맨에서 상담심리전문가로 성장한 권영찬
청년 공유공간 운영, ‘해진나래’ 총괄책임자 심민호
KIA아운드셋벨, 감심장 사이드암 투수 임기영

매망 초대석

추사 집대성 간송미술관 기동, 최완수

“법고창신의 정신 한결같이 새깁니다”

대한민국 식물명인 ⑥
세계가 반하는 한국차
만드는 정성의 손길
차·말차 명인 서민수

남도 시간 속을 걷다 ③
한 세기를 품은
화순농협 동부지점 건물

정음수의 뛰어난 예술가의 재능과 선택 ④
자본주의에 맞장 뜬 두 예술가
앤디 윌홀 & 오웬 보이시

음식 이야기
진짜 메밀의 품이 원한다면
100% 메밀국수 맛보세요

아트 뉴스 & 리뷰
단순하고 순수한 색의 형성,
진원장 개인전 ‘꿈의 정원’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 ⑥
아나운서 지망 광풍과
추락하는 위상

드론으로 본 세상
풍경단상

화제의 사람들
‘지리산현대 당일 종주’ 하는
‘나사모산우회’

국가(청) 르네상스 프로젝트 ①
명을 잃길 명작 남중희 한다는
진도 수품향

남도 문화향
완충선이 있든 없든
예술과 역사의 혼으로